

[사회]

광주·전남 대학 정시모집 20일부터 시작

천차만별 전형요소 잘 살펴야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각 대학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 제각각이어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부(내신)와 수능의 비율이 대학과 학과별로 다른 것은 물론, 총점 자체가 다르고 같은 대학에서도 군별로 비율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 수험생들은 본인의 등급을 각 요소별로 제시된 비율에 따라 점수화해 지원 가능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전남대는 정시모집에서 광주(2천 87명)와 여수(508명)캠퍼스를 합쳐 모두 2천595명을 모집한다. 891명을

전남대 가군 수능 100%

광주대 나군 내신 100%

모집하는 가군은 100% 수능 성적으로만 뽑고, 1천704명을 선발하는 나군은 학생부 50%·수능 40%·면접 10% 반영된다. 가·나군 모두 총점은 1천점이고, 수능 환산점수 만점은 400점이다.

조선대는 군별로 489명(가군), 902명(나군), 330명(다군) 등 모두 1천 721명을 뽑는다. 가군의 경우 총점 600점에 학생부 환산점수 만점은 100점이고, 수능은 500점이다. 총점 1천점인 나군은 학생부와 수능의 총점이 각각 500점이며, 다군(총점 600점)은 가군과 비율이 같다.

광주대는 정시모집에서 492명을 선발할 예정. 가군(총점 400점)은 학

생부가 60% 반영되므로 만점이 240점이고, 반영비율 40%인 수능은 160점 만점이다. 나군은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며 다군에서는 가군과 반대로 학생부와 수능의 비율이 각각 40%, 60%다. 호남대는 가·다군(총점 500점)의 학생부·수능 반영비율이 각각 50%이며 나군은 학생부만 100% 반영된다. 광주대와 호남대 나군의 경우 수능 성적이 안 좋은 학생 또는 내신이 월등히 좋은 전문계고교 출신 학생들이 노력할 만하다.

순천대는 가·나·다군 모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 학생부 50%·수능 40%·면접 10%로 같다. 총점이 1천점인 나군은 학생부 50%·수능 40%·면접 10%로 같다. 총점이 1천점인 나군은 학생부 50%·수능 40%·면접 10%로 같다. 총점이 1천점인 나군은 학생부 50%·수능 40%·면접 10%로 같다. 총점이 1천점인 나군은 학생부 50%·수능 40%·면접 10%로 같다.

■광주·전남 대학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Table with columns: 학교명, 군별, 반영비율(100%), 전형종류. Rows include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순천대, 목포대.

60%·수능 40%로 제각각이어서 잘 살펴야 한다.

순천대의 경우 사범대에만 적용되는 나군을 제외한 가·다군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 30%·수능 70%이며, 총점은 1천점이다. 가·다군을 모집하는 목포대(총점 1천점)는 가군의 반영비율이 학생부 20%·수능 80%, 다군이 50%·50%로 가군에서는 수능환산점수 총점이 800점, 다군은 500점으로 각각 다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독감 주의보

고령자 예방접종 받아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독감의 사환자가 11월 중순(18일~24일)부터 증가해 12월 2일~8일 사이 외래환자 1천 명 당 3.34명으로 유행기준인 3명을 넘어섬에 따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우려된다면서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닭·오리·돼지 농장 종사자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또 손 씻기, 양치질 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Dec 18th. Includes '아침 안개' (Morning fog), '12월 18일' (Dec 18th), and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like Seoul, Busan, and Jeonju.

지방대 총장들·지역혁신협 로스쿨 정원 반발 "지방에 60% 배정해야"

지역 국립대·사립대 총장과 광주 전남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7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배정방식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총장단들은 17일 "교육부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서울권역 52%·지방권역 48% 배정하기로 한 것을 지방권에 60% 이상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권역에 배정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경우 최대 서울권 57%·지방권 43%까지 배정하게 된다"며 "지방대학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오차범위 없이 배분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수도권으로 편향된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반영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협의회도 이날 성명

을 내고 "교육부의 결정은 '지역간 균형배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로스쿨 입학정원의 60%를 지방권역에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는 물론 교육·법률·문화·의료 등이 집중된 현실에서 로스쿨은 우수 인재들의 지역 간 분산배치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은 견인하는 핵심정책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며 "법률사 각지대에 있던 지방과 소외계층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날로 세분화되어가는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의 보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 로스쿨 정원 60% 이상은 반드시 지방권역에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한 비수도권지역 국립대 총장들에게 로스쿨 도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며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교육·학부모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어린이들 영어 체험 "Very interesting!"

17일 문을 연 광주시 동구 서석초등학교의 '광주서석영어센터'.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상점에서 장난감을 살 때 쓰는 생활 영어를 배우고 있다. 학교 속 '영어마을'인 이곳에서는 동구지역 초등학교생 3천800여명이 무료로 영어 현장 체험을 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동구지역 초등학교생 3천800여명이 무료로 영어 현장 체험을 하게 된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월출산 생태계 교란 들고양이 잡는다

영산강환경청 내년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이하 환경청)은 17일 "월출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면서 다람쥐·토끼 등을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들고양이 포획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애완용으로 키워지다가 버려진 들고양이는 국내 야생 등지에 마땅한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뛰어나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다. 또 각종 질병에 감염돼 다른 야생동물에게 전염병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경부터 시작된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조사결과 월출산 천황·도랑·경포대 지구에 51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은 지난 13일 '월출산국립공원 들고양이 포획협의회'를 열어 고양이 전용 포획틀 12개를 설치해 붙잡은 뒤 안락사·불임 수술 후 재방사하거나 학술 연구용으로 제공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줄이는 태안돕기

충남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 광주·전남에서도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구호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18일 임직원 80명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충남 태안 원북면 구례포 해수욕장에서 기름더 제거작업을 한다. 도시공사는 봉사단 파견 외에도

줄을 이끈계장도 현지로 급파했다.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줄을 잇고 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가족단위 봉사자·회사원 등이 '기름 한 방울'이라도 걸어내기 위해 태안으로 달려오고 있다. 현재 광주시 등에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문의가 잇따라 시 민원 상담실은 태안으로 파견되는 여러 기관의 자원봉사단 교통편에 편승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작업복·흙착포·장화·장갑 등 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80명 분량)를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며, 전 직원이 모은 성금 100만 원을 태안군 측에 전달한다.

광주시 북구는 17~18일까지 북구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 옷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다. 여수시도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당시 현장에서 업무를 봤던 이승우 여장보존담당을 장기출장 형식으로 한 달간 태안군으로 파견해 사고 수습을 돕도록 했고, 당시 상황 수습을 진두지휘했던 화정면 적금도 박

실은 태안으로 파견되는 여러 기관의 자원봉사단 교통편에 편승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시민단체인 광주 환경운동연합도 오는 19~22일까지 시민 자원봉사단 8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태안에 보내기로 했으며, 향후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추가로 태안반도 지역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밖에 조선대·나주 동신대 총학생회 등 대학가에서도 북구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achet Cleaning' (사제질세질식) by Samhyun. Includes a list of service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주)삼현로아스 TEL 1566-9194.

Advertisement for '2008 경찰공무원 대비 겨울방학 대특강' (2008 Police Officer Preparation Winter Vacation Super Special Course) by Mega Police Academy (메가경찰학원).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instructors, and contact info: 062)226-5050.